

FA CES

장르 뮤직비디오

러닝 타임 3:30-4:30

기획 의도

세기말 아이들의 표정들

우리 세대는 포스트디지털 시대를 피부로 맞으며 자라 왔다.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향수가 존재하듯이, 우리에게 로우 퀄리티 픽셀들의 조합을 브라운관에서 보던 그 시절의 향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발빠르게 발달해 온 전자 기술을 받아들이며 4K 화질의 동영상을 별다른 장치 없이 노트북으로 감상하고, 아이폰을 생체 인식으로 조정하고, 발 밑으로 쥐가 지나다니는 경험을 4D 영화관에서 하곤 하지만, 어릴 적 부모님이 담아 준 vhs를 보며 동심을 되찾고 조그마한 텔레비전으로 시청했던 만화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학습하였다. 우리는 이 사회를 기계적이고 냉소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끝이끝대로 살아가기보단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며 각자의 개성을 찾아 나서야 한다.

개요

언제나 그렇듯 TV에서 방영되는 쇼를 멍하니 지켜보는 20대 중반 여성 둘. 불현듯 TV에서 90년대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목을 끌게 하고, 둘은 TV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세기말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패션, 물건, 장소 등을 피부로 섭취하며 이윽고 그들이 쇼의 주인공이 되어 화면을 이끌게 된다. 그들은 텔레비전 속 친구들과 90년대를 풍미했던 반복적인 기계음과 통통 튀는 효과음에 맞춰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시절의 향수를 온 몸으로 섭취하기 시작한다.